



반전 · 반자본주의 노동자 운동

다함께 고대모임

후원해 주십시오
하나은행 391-910195-67507
예금주 강영만

http://www.alltogether.or.kr | nokdootg@hanmail.net | 2005년 5월 24일 소식지 5호 2판

이건희 학위 수여 항의 시위 참가자 징계에 반대하는 전국 교수 162인의 선언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 만약, 고려대학교 당국이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는 매우 반교육적인 처사이다.”

강수돌(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병련(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외 160명 [이하 가나다순]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덕수(제주대) 강신성(한남대) 강신준(동아대) 강영호(울산대 의대) 강원돈(성공회대) 강윤식(경상대의대) 강이수(상지대) 강인순(경남대) 강정구(동국대) 고은태(중부대) 권태호(대구대) 김경수(고려대) 김교빈(호서대) 김규종(경북대) 김누리(중앙대) 김달곤(경상대) 김대호(목원대) 김도형(성신여대) 김동춘(성공회대) 김무진(계명대) 김문봉(대구대) 김상근(한신대) 김세균(서울대) 김수행(서울대) 김연각(서원대) 김영배(경성대) 김영범(대구대) 김영석(경상대) 김용찬(동해대) 김의동(경상대) 김인숙(가톨릭대) 김중서(배재대) 김준(동국대) 김준수(부산대) 김준형(경상대) 김중희(가톨릭대) 김차두(경성대) 김창남(성공회대) 김창록(건국대) 김천길(경성대) 김철환(인제대의대) 김평호(단국대) 김한성(연세대) 김호성(중앙대) 남춘호(전북대) 노중기(한신대) 도지훈(김천대) 류동민(충남대) 민경희(충북대) 박노영(충남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오복(순천대) 박정원(상지대) 박태균(서울대) 박훈하(경성대) 백도명(서울대) 백수인(조선대) 백승욱(중앙대) 백원담(성공회대) 백좌흠(경성대) 서강목(한신대) 서관모(충북대) 서정근(창원대) 서창호(목포대) 손미아(강원대) 손준식(중앙대) 손호철(서강대) 송주명(한신대) 신병식(상지영서대) 신영전(한양대의대) 신정원(성공회대) 심성보(건국대) 안병우(한신대) 안성진(경상대) 양영모(울지대의대) 양해림(충남대) 여호규(외국어대) 오문원(울산대) 오영희(덕성여대) 오용록(서울대) 오제명(충북대) 유문선(한신대) 유세홍(한신대) 유승원(가톨릭대) 유영진(인제대의대) 유원섭(울지대의대) 유일상(건국대) 윤세준(연세대) 윤지관(덕성여대) 윤태호(부산대) 윤희식(전북대) 윤희중(충남대 의대) 이강은(경북대) 이경수(인제대) 이구표(인천대) 이기영(동아대) 이득채(대구가톨릭대) 이민환(부산대) 이범수(동아대) 이병훈(중앙대) 이상이(제주대의대) 이심성(경성대) 이영문(아주대의대) 이정호(방송대) 이종영(성공회대) 이종원(서울시립대) 이진석(충북대의대) 이창원(경성대) 이창호(경성대) 이채연(전남대) 이화영(서일대) 임성운(순천대) 임정수(가천의대) 임준(가천의대) 임철우(한신대) 장병인(충남대) 장상환(경성대) 전국서(울산대) 정대화(상지대) 정백근(경성대) 정병기(서울대) 정성진(경성대) 정재현(충북대) 정진상(경성대) 정해구(성공회대) 정호영(충북대) 조경순(서일대) 조돈문(가톨릭대) 조성일(서울대) 조승래(청주대) 조철주(청주대) 조홍준(울산의대) 주경복(건국대) 주동황(광운대) 주무현(경성대) 주은우(중앙대) 진경환(한국전통문화학교) 진재용(인제대의대) 채호석(외국어대) 최갑수(서울대) 최경희(한국외대) 최규진(대진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영찬(서울대) 최용준(한림의대) 최유진(경남대) 최종민(전북대) 한정숙(서울대) 한준(연세대) 한철호(동국대) 한홍구(성공회대) 홍덕률(대구대) 홍성태(상지대) 홍순권(동아대) 홍승권(서울대) 홍재웅(인하대) 황갑진(경성대) 황상익(서울대) [2005년 5월 23일 현재]



세계적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요크대 정치학 교수, 《마르크스의 사상》 저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중앙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방한 강연의 연설 첫 부분에서 고대 학생들의 투쟁에 연대를 표했다. 그는 이날 4백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21세기 자본주의 — 노동계급은 사라지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먼저 저는 고려대 학생들에게 뜨거운 연대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전 세계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맞서 저항하는 행동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학위 수여 항의 시위 참가자
징계 반대 서명

울산구치소에서 만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고대 시위 학생들, 고맙고 자랑스럽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다함께 고려대 모임’에 5·2 시위를 지지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김성환 위원장은 울산구치소로 이송되는 길에 고대생들의 시위를 봤다며, “참으로 통쾌했다”고 편지에 썼다.

“울산구치소로 가는 나를 ‘다함께 고려대 모임’ 학생들이 환송식을 열어준 것 같았다.”

김성환 위원장은 <말> 지 5월호 등을 통해 삼성의 노조 탄압 사례와 핸드폰 위치 추적을 날 낚이 폭로하고 삼성을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을 비호,



무혐의 처리했다. 그 뒤 김성환 위원장은 되레 명예훼손으로 삼성에 고소당해 지금 울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다함께 고려대 모임”은 김성환 위원장이 시위 학생들을 꼭 만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재판이 열리는 울산으로

지지 방문을 갔다.

재판이 열리기 전, 우리는 울산구치소 접견실에서 김성환 위원장을 면회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우리에게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을 거듭 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더 많은 학생들이 삼성의 노동탄압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고려대에 기부한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삼성이 산업재해를 당한 여성 노동자들을 ‘가사노동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해 피해 보상은커녕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위원장의 재판에는 많

은 노동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의 노조 탄압 사례를 폭로했다. 납치, 감금, 전기봉을 든 용역회사 직원을 동원한 파업 파괴와 폭행 등...

그러나 검사는 노동자들이 방어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한 ‘폭력’만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김성환 위원장은 재판정에서도 삼성의 노조 탄압에 대한 자신의 폭로가 사실이라고 굽힘 없이 주장했다.

그가 면회 때 남긴 말처럼, “삼성노동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 학생들도 이 정당한 투쟁에 함께하고 지지를 보내자.

계속되는 지지의 목소리(3)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대학의 철학이 노동자에 대한 탄압 정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4.18 정신은 부당한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정신입니다. ... 삼성 권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고려대학이 그리고 한국의 대학이 가져왔던 역사적 정신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한 여고생(메일로 온 지지글)

“2년 후 대학에 가면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인문계 학생입니다.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 그리고 한때나마 일부 언론의 왜곡된 기사만을 보고 ‘지금 때가 어느 팬데, 폭력이야’ 생각했던 저를 반성합니다. 팟팅!

고대 법대 민주동문회 준비모임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정신으로 돌아보라 ... 고대는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권력의 이름이 아니요, 자본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이름은 더더욱 아니다. 100주년 기념식에서 어윤대 총장은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의 정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고대 공동체의 모습은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시금석이 될 것이다.”

강원대 공동성명서(중부일반노동조합 강원대 현장위원회와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의 8개 학생회와 자치단체)

“학생들에 대한 징계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고 폭력적인 자들은 바로 고려대 당국과 삼성의 이권희다. ... 만약 고려대학교가 학생들의 정당한 행위를 징계 한다면 우리는 고려대 학생들과 부당한 징계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고대 동아리연합회 성명서

“학교가 보수 언론의 마녀 사냥에 동조하고 학생들을 탄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한 것을 근거로 징계를 한다면 학생들의 자유



로운 활동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노동탄압 박사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돈으로 학위를 팔아넘긴 학교는 학생들을 꾸짖을 자격이 없습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결과

총학 탄핵 총투표안이 압도적 반대로 부결되다

총투표안 찬성 대의원들도 총학 탄핵에는 대부분 반대

지난 5월 19일 '평화고대'의 총학생회 탄핵안 발의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열렸다.

'평화고대' 이승준은 탄핵안 발의 발제에서 총학생회가 "진실된 사과를 거부"했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탄핵 기도의 진정한 이유는 아니다. 그는 자유게시판에서 "운동권 넘들부터 학교를 떠나라", "시위주동자들 죄다 퇴학처분 시켜라" 하고 말하는 등 시위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진보적 학생들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에 앞장서 왔다.

전학대회에서 한 대의원이 이승준에게 "자유게시판 이전 글이 폭로되자 글이 삭제됐다. 글은 왜 지웠느냐"고 묻자, 그는 "잠시 이성을 잃었다"며 시위의 정당성을 부인했던 것을 사과했다.

하지만 그가 시위를 이유로 한 총학 탄핵안 발의를 거둬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의 사과가 진지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승준은 이날 "이건희 회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항의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탄핵 발의가 "안타까운 일"이고 "될 수 있다면 다시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대의원의 지적처럼 탄핵 발의가 안타까우면 안하면 될 일이다.

이승준은 탄핵 발의 발제에서 "5월 2일 시위에 참가한 대의원은 손을 들어 보라"며, 시위에 참가했던 대의원의 의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학생대표자들의 사상을 검증해 투표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황당한 발상이다.

탄핵 발의 발제에 이어, 탄핵안 발의를 총투표 안건으로 상



신경아 · 기자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 날 전학대회에 참가한 다수 대의원들은 "총학생회장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학우를 폭행하

거나 학교와 협잡을 부려 학우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며 이번 탄핵안은 총투표에 상정할 만한 사안이 아님을 옹기 지적했다.

또한 총학생회가 시위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이미 밝힌 마당에 "시위 참가를 빌미로 총학을 탄핵하는 것은 다른 노림수가 있고, 총학생회를 탄핵하는 것은 민주적 제도를 악용하는 꼴"이라는 대의원들의 주장은 큰 박수를 받았다.

열띤 찬반토론 결과, 압도적 표차로 총학탄핵안이 부결됐다(총투표 상정 찬성 13, 반대 39, 기권 2). 더욱이 총투표 상정에 찬성한 대의원들도 대부분 탄핵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오직 한두 명만이 총학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총투표를 지지했다.

총학탄핵안 부결 후 징계반대결의문도 표결에 부쳐졌는데 1명만이 이에 반대해 압도적 지지로 징계반대결의문이 채택됐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결과는 '평화고대'의 주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다. 그리고 이건희 학위 수여 항의 시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평화 고대'의 우파적 성격을 기억하라

탄핵 기도는 실패했어도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이승준이 만든 '평화고대'는 단지 평화를 사랑하는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번 시위를 계기로 총학생회로 대변되는 교내 진보적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다. 그들의 애초 조직 명칭은 '총학 없는 평화고대'였다.

그들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총학 없는'이라는 표현을 명

칭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총학 탄핵 기도는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학우들의 정서를 옹기 반영한 전체학생대표자들의 결정에 따라, 그들의 총학 탄핵 기도는 일단 물건너갔다.

하지만, 그들이 이번 시위를 빌미삼아 조직적인 총학 탄핵 움직임을 보였던 것에 비춰볼 때, 그들은 다음 기회를 또 노

릴 수 있다.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고대 학우들은 이건희 학위 수여 항의 시위 때 취했던 그들의 우파적 행태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시 진보적 총학을 공격하려 한다면, 쓰라린 실패를 다시 한번 안겨줘야 한다.

100명의 학생들이 모인 '징계 반대 행동의 날'



징계 논의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18일 민주광장에서 5·2 이견희 학위 수여 항의 시위 '주동' 학생 5인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했다.

이 집회는 광범한 지지 속에서 열렸다. 그 때까지 총 2700여 명의 학생들이 징계 반대 서명을 했고, 전국의 교수님 161명이 징계 반대 연서에 참여했다.

또, 박노자·진중권·손석춘·홍세화 등 진보 인사들과 최순영·심상정·단병호 등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도 우리들의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이런 지지에 힘입은 5명의 징계 대상자들은 부당한 징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이날 집회에서 분명하게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학교 본관으로 행진해 집회를 계속했다.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대표자

들과 징계대상자 5인은 총장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의 징계 반대 서명과 진보인사들의 연서와 지지 성명 등을 전달했다.

또 이들은 징계 논의의 즉각 중단을 학교당국에 요구했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명분과 근거로 5명의 학생들을 징계하려 하는지 밝히려며, 장막에 가려진 징계 논의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 대해 학교 측은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총장 면담을 요구하자 '총장님은 바쁘시다'며 거절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정식 절차'를 통해 면담 약속을 잡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징계 논의에 대해서도 학생처 직원은 "모른다", "징계 논의는 없다"고 답할 뿐이었다. 학생들이 "그렇다면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하고 묻자, "꼭 그렇다고도 할 수 없다"며 계속 말을 바꿨다.

"왜 주동자를 선별하는 보고서를 썼는가?", "학생처가 '시위 주동자들에 대해 상벌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총학생회에 통보했던 것은 무엇인가?" 등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자 학생처 직원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쨌든 난 모르고, 책임 있게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 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학생들은 계속 항의한 결과, 처장단의 공식 논의 결과를 수요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약속 받았다. 또, 상벌위원회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처장단 교수들과의 면담을 다음 주 초에 열 것을 약속 받았다.

우리는 학생들을 징계하겠다는 학교가 대표자들과 징계 당사자들에 대한 공식적 통보도 없이 학생처 직원 등을 통해 무책임하게 답변을 미루기만 하는 것에 분노한다.

학교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우리는 지난 5월 18일 총장실에서 약속한 두 가지 사항을 책임 있게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학교당국은 처장단의 공식 논의 결과 발표를 통해 징계 계획의 완전 백지화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징계가 결정된다면 학생들의 저항은 더 확대될 것이며, 학교당국은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징계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합시다!

징계반대 대책위에 함께합시다!

<http://cafe.daum.net/ku52dcw>